

# 그리워지는, 그 여름, 그 섬

글. 장성은 OBS경인TV 편성제작국 제작1팀 PD

달궂어진 보닛 위에 계란이 프라이가 되던, 유례없는 더위였다. 사계절이 뚜렷해서 매력적인 기후라지만 2018년의 여름은 편집에서 effect 조절 중 bright & contrast를 확 올려버린 것 같은 뚜렷한 더위였다. 그랬던 그 여름에 나는 <그리우니 섬이다>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다. 너무 덥고 힘들어서 ‘과연 그리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소 그리워지는 곳들이 있다. 그곳을 말해 보려 한다.

<그리우니 섬이다>는 한국전파협회 2018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제작하게 된 프로그램이다. 같은 팀 선배인 박철현 PD가 기획을 하여 전반적인 프로듀싱을 하였고, 역시 선배인 김력균 PD와 필자, 셋이서 12부작을 제작하였다. 경인지역 방송으로, 짧게 정보성으로 소개가 되었던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조망하고, 아름다운 풍광과 지역 주민들을, 동행한 사진작가의 앵글

과 우리의 영상으로 담고자 한 다큐멘터리이다. 그중 나는 12부작 중 대연평도, 자월도, 장봉도 편을 연출하였다.

## 어부, 실항민, 군인의 섬, 연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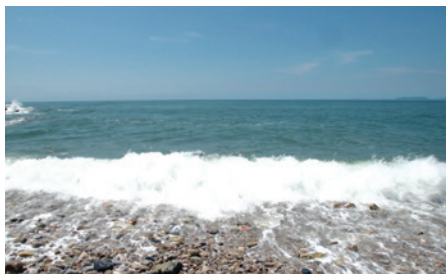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다. 누구든 그의 외모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를 만나면 모두 아름답다고 칭송하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아름다움을 질투한 이가 그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상처는 제법 컸기에 흉터를 남겼고, 이제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기보다 그의 상처를 동정하였다. 연평도는 바로 그 상처 입은 미인 같았다. 많은 사람이 ‘연평도 포격’으로 알고 있고 동정하고 위험한 곳이라 생각하지만, 그 전에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이다.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소연평도

인천항에서 2시간 걸리며, 육지에서 차를 가져가기엔 다른 섬보다 불편하기에 후술할 두 개의 섬보다 육지와 더 독립된 곳으로 느껴졌다. 주민과 군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군인 지인 일 정도로 섬과 관계없는 관광객은 적었다. 연평도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평도가 가진 상처와 아름다움에 집중하기 위해 방송에는 대연평도만을 담았다. 대연평도에서 ‘大’는 소연평도에 비교하여 상대적인 크기로 붙여진 접두어겠지만, 실제로도 작지 않은 섬이었다.

해병대의 시설과 접근 금지의 인근 지역이 연



가래칠기 해변을 걷는 사진작가 유창호

평도 전체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가보지 못한 지역도 꽤 많았지만, 그곳을 제외하고도 연평도는 꽤 크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나 해안마다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각 해안이 이어져 있기보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중 가래칠기 해변은 답사와 며칠간의 촬영으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는 연평도를 다시 ‘조면’인 듯한 인상을 주었던 신선한 곳이었다.

가래칠기 해변은 높은 병풍바위로 둘러싸인 곳으로, 넓은 모래사장에 자갈과 돌맹이 올망졸망 펼쳐져 있어 바닷물이 밀려들면 ‘자르르르르’ 소리를 내며 굴러오는 곳이다. 그 소리가 참으로 좋아서 실제로 편집할 때 그 부분만 1분 넘게 듣도록 넣기도 했다. 물이 밀려들 때 우르르 몰려오는 자갈과 돌맹이가 물이 빠질 때 또 우르르 굴러나가는 모습은 80년대 유행하던 나폴레옹 개그에서 ‘이 산이 아닌가벼’하며 회군을 하는 대장의 군사들 모습 같다고 생각했다. 자갈과 돌맹이 소리가 ASMR처럼 너무나 좋아서 앉아서 멍때리고 싶은 유혹을 가까스로 참고 다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난다.

연평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실향민’이다.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혹은 고향이 보이는 곳에 살고 싶어서 연평도에 정착했다고 한다. 일주일가량을 실향민 할아버지를 촬

영하며 꼭 촬영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백로 서식지’였다. 산봉우리 테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편 봉우리에 모여 있는 백로들을 바라보는 곳이었는데, 촬영이 힘들어서 하지 않으려 했었다. 연평도는 북한 인근이라 드론 촬영이 쉽지 않았고, 심지어 그때는 해병대 추락 사건으로 3주 넘게 승인이 나지 않았었다. 촬영을 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로를 드론 없이 담기란 쉽지 않았다. 가지고 간 가장 배율이 좋은 렌즈를 사용해도 엉겨 붙은 머리에 가득 묻어있는 비듬과 같은 모습이었다. 서식지 관람 장소에 있는 망원경이 야속하기만 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을 그대로 영상으로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용상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백로를 실향민의 애환과 대조되는 상징물로 꼭 담아야 했기에 촬영을 감행했고, 비록 비듬과 같이 작게 들어가긴 했지만 에필로그를 잘 살려주었던 것 같다.



백로서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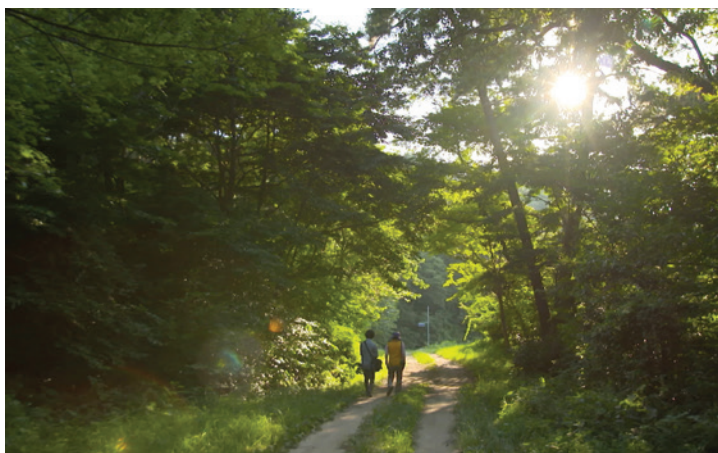


국사봉 임도

## 달도 쉬어가는 섬, 자월도

붉은 달이 보였다는 의미를 가진 섬, 자월도. 하지만 보려고 했던 붉은 달보다 작열하는 붉은 해를 더 많이 보았던 곳이다. 7월 중하순 연평도 촬영을 마치고, 바로 이어 7월 말부터 8월까지 더위의 최절정이던 때 촬영을 하였다. 더위를 피하러 간다는 의미의 ‘피서(避暑)’지만 너무 더웠던 탓에 피서객도 예년의 30%밖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더워서 더 빛이 나는 자월도의 명소가 있다. 40도가 육박하는 기온에도 촬영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곳이다.

국사봉 임도길, 말 그대로 산길이다. 해안을 감싸는 해안 절벽 혹은 산 등성이 길로, 뽕뽕하게 우거져있는 소나무들 덕분에 산 깊숙한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다. 처음에는 말을 키웠다고 전해지는 ‘마바위’를 촬영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는데 태고의 자연과 같은 산길에 취해 ‘야생화’ 촬영으로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 진모래 해변으로 가는 길 중간에 ‘마바위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셋길로 차를 돌려 들어가다 보면, ‘아 이곳은 사륜으로 가야겠구나’ 싶을 정도의 거친 길이 나온다. 우



국사봉 임도를 걷는 유창호 사진작가와 야생화 전문가 김건욱 박사

거친 소나무들이 해를 가려 드라마틱하게 채도가 낮아져서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채도가 낮아졌던 만큼 온도 또한 낮아져서 더욱 만족스러웠던 곳이다. 입구의 삼림(森林)이 방음벽이 되어 외부의 소음을 차단한 상태에서 바람소리와 간간히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바닷소리, 삼림(森林)에서 서식하는 새들의 소리와 야생화와 살아가는 곤충들의 날갯짓 소리까지 또 다른 ASMR 스튜디오였다. 연평도의 가래칠기 해안이 있다면 자월도에는 바로 국사봉 산길이 있었다. 자연의 한적함과 고요함을 오롯이 느끼며 2~3시간을 걷다 보면 도로가 나오는데 ‘리’가 바뀌어 있다. 섬이기에 길을 잃어도 직진을 하거나 해안가를 따라 걷다 보면 어떻게든 길이 나온다.

진모래 가는 길에서 중간에 마바위 가는 길로 빠지지 않고 직진을 하면 진모래 해변이 나온다. 정확히는 해변이 나오지 않고 누각과 어느 집안의 산소가 나온다. 산소에 잠시 예를 취하고 옆에 나 있는 계단을 따라 밀림과 같은 셋길을 헤치고 내려가다 보면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내려가는 계단이 다소 가파르고 밀림을 헤치고 가고 또 빨리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마저 더해져 속도가 붙어 가볍게 뛰며 내려가게 된다. 푸른빛이 어른어른거리는 지점에서 시야를 가리는 칠흑굴을 사알짝 치우면 푸른 구름과 하얀 바다가 보인다. 말 그대로 파란 구름과 하얀 바다다. 나무 그늘에서 탈출하여 바다의 띄약별을 바로 접한 직후이고, 널리 펼쳐져 있는 수평선에 구름과 바다가 서로를 반사하고, 밀림을 헤치며 초록빛에 익숙해진 눈이 가장 먼저 인식한 것이 파란 구름과 하얀 바다다. 눈이 컬러바를 깔고 잠시 화면 조정 시간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진모래 해변의 절경이 보인다. 좌에서 우로 몸을 pan 하면 우측에서 우뚝 멈추고 zoom in 하게 된다. 바로 자월도에서 대대로 살고 계신 강태원 어르신께서 직접 추천 해주신 명소 ‘날염’이다.

날염으로 내려가는 사진작가 유창호와 강태원 어르신



날염



날염 부감



진모래

염은 바다에 붙썩 솟아난 작은 바위섬을 말하는 우리말이라고 한다. 진모래 해변 서쪽에 썰물 때 드러나는 편평한 바위섬이 바로 날염이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고, 검색으로도 찾을 수 없는, 지역 토착민만이 아는 곳이었다. 섬의 물 때는 날짜에 마다 제각각인데, 내가 갔을 때는 물이 많이 빠지지 않을 때라, 날염까지 건너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물이 많이 빠졌을 때는 건너가서 쉬곤 하시는 강태원 어르신의 90년 유희처였다고 한다. 물이 덜 빠져 사람이 오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 대신 갈매기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었다. 우거진 나무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더해져 이보다 더 좋은 피서 장소는 없다는 것을 갈매기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 더할 나위 없어라, 장봉도

앞서 연평도가 2시간, 자월도가 1시간 걸렸다면 장봉도는 30분 걸렸다. 인천항이 아닌, 인천공항 가는 길에 있는 삼목선착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다르다. 운항 횟수도 웬만한 시외버스보다 많고, 대부분 차도선 이기에 ‘점심 먹으러 장봉도 왔다’는 몇몇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장봉도는 외지인들이 소문 듣고 찾아온 우리 동네의 맛집과도 같은 곳이었다. 멋진 풍광과 맛난 음식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멀리 헤매었지만 정작 가까운 곳에 있었던, 파랑새 같은 관광지다.

가까운 만큼 관광객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있는 곳이 바로 장봉도이다. 선착장에 바로 관광안내소와 렌터카 사무소가 있어서 무계획으로 혹은 가볍게 왔던 사람들도 제대로 관광할 수 있게 해준다. 섬 전체가 긴 봉우리처럼 되어있는 가로로 기다란 섬이라 하나 있는 대로로 왕복을 하는 형태이다. 해안을 따라 섬을 돌고 싶다면 트래킹을 해야 한다. 그 때문에 장봉도에서는 트래킹 코스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

섬 특유의 갯티길과 긴 봉우리로 이뤄져 있는 만큼 산길과 해안가에 설치되어있는 데크 따라 혹은 모래사장을 따라 걷는 해안 길까지, 31가지 아이스크림 가게 온 것처럼 입맛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의 관광안내소에서 트래킹 코스의 지도와 난이도, 거리 등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놓은 안내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꼭 챙겨서 보면 좋다. 7개의 트래킹 코스마다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 걷는 재미를 더해준다. 특히 가막머리 전망대 가는 길이 트래킹 코스의 백미다. 여러 길이 있지만 ‘전망대’라는 특정 탓에 어떻게든 산을 올라야 하는 다소 험준한 코스다. 하지만 초반에 열심히 산을 타고 중반부터 긴 봉우리를 따라 걷는 2코스 ‘하늘나들길’은 양옆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 걸을 수 있어 장봉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 촬영 장비를 들고 산속을 헉헉대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햇빛이 까공 하는 지점이 있다. ‘저곳부터 봉우리 길인



가막머리 가는 길



바다에서 본 가막머리 전망대

가?’하며 몇 번 속고 나서야 진짜 봉우리 길을 맞이하게 된다. 역시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열은 해무와 시원한 바람의 컬래버레이션은 당장 사장님이 금일봉을 하사하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곳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게 만든다.

힘들게 올라간 만큼 도착한 가막머리 전망대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장관이다. 해안 절벽에 설치된 데크 위에 올라 바로 발아래 깎아지른 절벽과 무섭게 달려드는 파도를 두고 유유자적하게 바다 저편의 노을을 감상하는 맛이란, 융프라우에서 먹는 신라면은 상대도 되지 않는 맛이다. 하늘나들길이 아닌 4코스 ‘장봉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또 다른 절경을 만날 수 있다. 장봉해안길은 봉우리의 아래 능선을 따라 걷는 산길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동행한 황해섬 네트워크 관계자들의 추천으로 해안을 따라 갯티길로 걸었다. 어른만 한 바위부터 어린

아이만 한 바위까지 크고 작은 바위들과 돌멩이라고 하기엔 큰 돌덩이들을 헤치고 걸어 발목은 다소 시큰했지만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한 유서 깊은 돌들을 감상하며 걷는 기분은 팬스레 마음을 엄숙하게 만들고, 태고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헤아리며 나란 인간의 희로애락이 얼마나 작고 부질없는 것인지 느끼게 만든다. 특히나 장봉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장봉편암’은 내가 이것을 안 보고 상함 칼국수만 먹고 갔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싶게 한다. 층층이 쌓인 지층이 상하좌우로 힘을 받아 구불구불해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암석이 여기저기 산재해있다. 층층이 쌓인 모습이 라자냐 같기도 하고, ‘첸베



장봉편암



장봉해안길

이'라고 알려져 있는 전병과자를 떠 올리기도 했다. 흙도 없는 암석 사이사이에 피어있는 야생화들은 자연에 경의를 표하게 한다.

올레길, 둘레길에 비견될 만한 장봉도 갯티길, 하지만 내가 걸었던 장봉도 최고의 길은 따로 있다. 트래킹 코스에도 기재되지 않은 그 길은 바로, 풀등이다.

물이 들어오는 새벽 시간에 맞춰 대빈창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서쪽으로 나가면 동만도와 서만도라는 무인도가 나오는데 그 인근에 너른 풀등이 펼쳐져 있다. 풀등이란 언덕 모양의 모래풀이란 뜻인데, 물이 빠진 모래언덕이 물살에 의해 풀처럼 곁이 나 있기에 풀등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장봉도의 풀등은 갯벌 흙과 모래가 적절하게 섞여서 어느 부분은 모래고 또 어떤 부분은 갯벌이라 사는 생물들도 제각각이다. 사실 배를 타고 풀등에 오게 된 것은 장봉도의 특산물인 상합 채취를 보기 위해 어촌계를 따라간 것이었다. 장봉도만의 특이한 도구로 어린이 얼굴만 한 상합이 툭툭 걸려 올라오는 모습은 오락실에서 게임하며 아이템을 먹는 듯한 재미를 주었다.

상합 채취의 촬영을 어느 정도 한 뒤, 물이 들어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무작정 풀등을 걷게 되었다. 만도리(동만도+서만도)까지 그리 멀지 않아 보여 드론으로라도 만도리의 생태계를 촬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걸, 사막에서 눈 앞에 오아시스가 자꾸만 멀어지듯, 만도리는 손에 잡힐 듯 안 잡히며 가까워지지 않았고 2시간 남짓을 걸어서야 만도리 앞바다까지 갈 수 있었다. 대이작도가 풀등으로 유명하던데, 대이작도의 풀등이 길다면, 장봉도의 풀등은 축구장처럼 넓다고 한다. 넓게 펼쳐져 있는 사막처럼 광활한 곳을 걸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또 어디가 있을까 싶다. 장봉도에서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다면 꼭 추천하는 것이 풀등 걷기이다.



상합채취 도전하는 장성은 PD



풀등을 걷는 촬영팀

기록적인 더위에, 익숙하지 않은 곳의 촬영이라 촬영 내내 '정말 섬이 그리워질 수 있을까?' 싶었다. 그림고 보고 싶으라고 만들고 있지만 정작 나는 스텝들의 더위, 피로, 아픔을 신경 쓰고,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내용에 고민하느라 열거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대뇌 저편에 잠시 넣어둔 기억을 꺼내어 이 글을 매개로 AR 체험을 하고 보니, 난 그때 즐거웠던 것 같다. 아니, 나중에 일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로 와서 즐기면 즐겁겠다고 즐거움을 유보했던 것 같다. 이제 섬이 좀 그리워진다. 유보해둔 즐거움을 느끼러 그 섬에 가야겠다. 